

설교 |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을 이어가는 가정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추석은 흩어져 있던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정을 나누는 감사한 명절입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도 있었고 걱정하며 기도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을 지나 오늘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78편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후대에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힘들 때 붙들어 주신 은혜,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신 은혜, 어려운 시간을 지나게 하신 은혜를 기억합시다. 감사는 모든 것이 완벽해서 드리는 고백이 아니라, 지나온 길에 함께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함께 고백합시다.

2.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알리라고 말씀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많지만 가장 귀한 유산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어려울 때 기도했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 감사했으며,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기억한다면 그것은 복된 유산입니다. 믿음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 이어집니다.

3.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건강과 자녀, 진로와 직장, 사업과 가정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다 알 수 없지만 내일을 붙드시는 하나님은 믿을 수 있습니다. 지나온 길은 은혜로 기억하고, 오늘은 감사로 살아가며, 앞으로의 소망은 하나님께 둥시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시 78:7)

이번 추석, 우리 가정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서로를 더 사랑하며, 믿음을 다음 세대에 이어 가는 복된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예배와 기도가 끊이지 않고 믿음이 대대로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추석 가정예배

2026년 9월 25일(음력 8월 15일)

추석 가정예배

가정예배 지침

추석 가정예배는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지나온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을 다음 세대에 이어가는 시간입니다. 식탁의 교제와 감사 나눔, 서로를 위한 축복과 기도로 풍성한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신앙고백 | 사도신경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 복의 근원 강림하사 (28장) 다같이

-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 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 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끄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빛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맘은 연약하여 범죄 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기 도 |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한 감사와 간구 가족 중에서

성경봉독 | 시편 78편 4-7절 가족 중에서

⁴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⁵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⁶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⁷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설 교 |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을 이어가는 가정 설교자

감사와 기도제목 나눔 다같이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을 나누고,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중보기도 다같이

찬 송 | 지금까지 지내온 것 (301장) 다같이

-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 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애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 주님 다시 뵈을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